

지츠히로 야마다 전국제회장

일본 기후현 미노카모시 출신의 지츠히로 야마다 박사는 2015년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제 98차 국제대회에서 국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야마다 전회장은 신경외과 의사이다.

미노카모 라이온스클럽 회원인 야마다 전회장은 1985년부터 라이온으로 활동하면서 지구총재, GLT 현장지역 부대표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다. 또한 2005-2007 국제이사로서 활동하면서 집행위원회 및 장기기획 위원회 위원, 대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2011-2012 및 2018-2019 회기에는 지명이사로 활동했다.

라이온스 국제회장 및 재단이사장직 임기를 마친 후, 야마다 전회장은 2017년 라이온스 역사상 가장 야심찬 대규모 기금 모금 프로젝트 캠페인 100을 이끌고 있으며 캠페인 100은 2018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제 101차 국제대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야마다 전회장은 그 간 협회를 위해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도주의 파트너상, 국제회장상(10회) 및 협회가 수여하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친선대사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PMJF로서 기부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야마다 전회장은 라이온스 활동 외에도 사회의료법인 고세이카이, 중일본 국제 의료 센터, 사회복지법인 지케이카이, 노조미노오카 병원 및 아지사이 간호복지전문학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병원협회 상임이사이자 기후대학 부교수이다.

국제활동 부문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온 야마다 회장은 모로코 왕국 명예영사, 기후-헝가리 우호협회, 기후-모로코 왕국 우호회회장, 기후-잘츠부르크 동우회 회장이다. 국제 우호 관계 구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헝가리 공로 훈장, 모로코 알라위트 왕조 명예 훈장, 중국 북경시 명예시민상을 수상했다.

야마다 전회장은 의과대학 시절부터 함께해왔으나 2020년 작고한 타시코 야마다 박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라이온으로 활동 중인 아들 딸 각 한 명과 손주 세 명을 두고 있다.